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상 운* · 신 재 현**

〈요 약〉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주제어 : 민간경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무질서, 피해경험, 민간경비 선택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신재현, 동국대학교, 범죄학 박사수료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
|--|

I. 서 론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범죄에 대한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예방을 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고취시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 중 직접적 범죄피해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상의 손상과 재산상의 손실 등 외형적 결과와 심리적·사회적 결과도 초래한다. 게다가 간접적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불안과 공포는 물론, 사회적 불신의 초래와 그로 인한 행동 유형의 변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경비와 방범장비나 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직접적 피해에 비해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F. Clemente & M. B. Kleinmann, 1976; M. T. Gordon & S. Riger, 1978; 이윤희, 2007: 184).

그 밖에 간접적 범죄피해는 직접적 범죄피해 만큼의 큰 기억을 남기지는 않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개인이 이러한 범죄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국민생활의 불안감,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공동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박정선, 1991 ; 성용은·최경식, 2009 : 84).

이렇듯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예방 만큼이나 중요한 화제가 되었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형태의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가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제한된 경찰력으로 인해 범죄예방활동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은 민간경비를 활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범죄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민간경비 선택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의 경우 범죄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활동적인 부분의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범죄 두려움으로 인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에서 ‘담장 허물기’운동을 통해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거주자에 대한 범죄두려움과 민간경비선택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상 민간경비의 선택은 개인보다 기업, 상업거래점 등에서 주로 거래되지만, 실제 안전함을 느껴야할 지역이 일반 거주지역임을 감안하여, 단독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가 비록 제한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범죄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범죄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는 논문으로서, 향후 민간경비 고객의 선택과 민간경비 판매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예상이 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이란 ‘범죄의 피해를 받을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학의 중심적인 과제이다(미야자와 고이치, 장규원 譯, 1999 ; 성용은·최경식, 2009 : 84).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에 해당하는 범죄 위험성 평가와는 명백히 구별되는데 범죄피해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범죄 위험성 정도에 대해 감정이입 없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Ross & Jang, 2000; 황의갑, 2009: 297).

즉,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감정적 요소를 내포하지 않는다면 범죄위험성 평가에 그치는 단편적인 개념이다(황의갑, 2009: 2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이 느끼는바 자신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 또는 범죄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범죄피해(Victimization)를 직접 경험한 결과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위협의 인식과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J. Garofalo & J. Laub, 1978; 이윤호, 2007: 184).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으로 초래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조은경, 1997: 30).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다른 학자별 정의를 분석하면 첫째, Warr·Reber(1985), Ferraro(1995)의 주장처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둘째, Fustenberg(1971), Sundeen & Mathieu(1976), 이윤호(1993), 박철현(2005)의 주장처럼 범죄 두려움은 피해자화의 가능성 또는 확률이다. 셋째, 성용은(2007), 차훈진(2007)의 주장처럼 범죄피해 위험성을 인식 및 지각하는 것이다. 넷째, Ute & Werner(2003)의 주장처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서·인지·형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승철, 2010 : 20).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것은 범죄가 직·간접적으로 일반시민에게 영향을 주어 범죄에 대한 공포·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 되어왔다.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조작적 정의를 대체로 자신이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범죄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개념화 하였다(이윤호, 1989; 성용은·유영재, 2007: 264).

그러나 개념화의 복잡성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목적으로 측정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나, 감정의 자극과 개인에 대한 위협이라는 개념화의 요건을 고려하여 크게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황의갑, 2009: 298).

특히, 실제적인 범죄피해 경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실제로 더 많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실제적 가능성과 주관적이거나 인식된 피해에 대한 위협성으로 나눌 수 있다(W. Doerner & S. Lab, 2011; 조운오 외 譯, 2012: 340).

이렇듯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차이로 인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측정이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해 학자별로 명확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두려움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은 언론의 영향, 방어능력의 취약성, 범죄에 대한 인식, 경찰의 부적절한 범죄통제, 물리적 환경, 범죄피해 경험, 사회심리학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범죄를 인식함으로 발생하는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인지된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인지된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 두 요소가 균형 있게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두려움의 정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Warr & Stanford, 1983; 성용은·최경식, 2009: 85).

이렇게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인지된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직접적인 피해경험,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 외부영향에 의한 원인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

(1) 직접적인 피해경험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과거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로 인해 범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논함에 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으로서, 이는 어떠한 형태이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박철현, 2005; 이재영, 2011: 233).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범죄피해는 미래 범죄피해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가 취하는 사전주의조치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다(C. L. Gibbson, J. Zhao, N. P. Lovrich & M. J. Gaffney, 2002; 이윤호, 2007: 197).

특히, 피해경험적 접근에서는 과거의 범죄피해경험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지각이 증가되며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된다고 설명한다(Skogan, 1987; 이재영, 2011: 233). 또한 연령과 성별을 통제했을 때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Galofalo, 1979; 이재영, 2011: 233).

그러나 최근의 경험연구에서는 이 가설이 부정되기도 하였다(Ferraro, 1995; 성용은·유영재, 2007: 263).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범죄두려움의 원인은 실제 연구결과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특성과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

초기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 주목했다면 무질서모델에서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서 지역무질서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본다(Lewis & Salem, 1986; 박정선·이성식, 2010: 175).

지역특성과 주변환경에 의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은 방어능력에 대한 취약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한 집단의 사람들이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본다(Warr, 1987; 성용은·유영재, 2007: 263).

그 밖에 주거지 치안환경과 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주거지 치안상태로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시의 불안을 반영하며, 직접적인 범죄보다는 도시의 상황이나 여건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도시의 불안상황이 범죄나 범죄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지의 불안상황 또는 주거지 치안환경은 범죄나 범죄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주거지의 주변환경 및 치안환경이 범죄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증명을 보강하고 있다(Garofalo, 1981; 성용은·최경식, 2009: 86).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변환경에 의한 범죄 두려움 형성 원인은 무질서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질서 모형은 지역사회 환경의 특성을 포함시킴으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분석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형은 주거지역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이운호, 2007: 198).

그리고 무질서 모델에서는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이때 물리적 무질서는 집 주변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터나 쓰레기, 낙서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무질서는 술 취한 비행청소년 집단, 약물중독자를 뜻한다(이운호, 2007; 이재영, 2011: 234).

이러한 무질서 중에서 물리적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주변환경으로 버려진 집이나 버려진 자동차, 각종 쓰레기를 버려놓은 공간과 파손된 가로등이 있는 주변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후미진 공간 등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공간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anklin, Travis, Courtney & Feam Noele, 2008;

이도선, 2011: 154).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무질서로 인해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된다(차훈진, 2008; 이재영, 2011: 234). 따라서 실증적 연구에서도 지역의 무질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Convington & Taylor, 1991; May & Dunaway, 2007; 정승민, 2007; 최수형, 2009; 이재영, 2011: 234).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연구에서도 확인해주고 있다 허경미·박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이 같은 장소에 범죄자와 공존한다는 환경적 영향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범죄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범죄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우범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행이 용이한 환경적인 요소를 변화시킴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허경미·박영주, 2008; 이도선, 2011: 154).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은 불안정한 주변환경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변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 모두를 의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의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결국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 및 장소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3) 외부영향에 의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성

외부영향에 의한 범죄두려움 형성은 외부의 간접적 피해경험, 미디어를 통한 범죄 피해경험의 영향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로 인해 형성되는 영향 등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범죄두려움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통합모형과 간접피해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회통합모형은 지역해체와 지역의 구성원들의 통합력 약화가 범죄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에서 지역통합과 유대가 낮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역의 사회통제력이 낮다고 인식하고 되고, 그만큼 자신의 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한다(Taylor & Hale, 1986; 박정선·이성식, 2010: 176).

사회통합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결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친구의 수와 거주기간으로 측정도니 사회통합이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과 과거 경험이나 공식집단에서의 참여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면 안전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역사회유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정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은 사회적 통합의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가 일관적이지 못한 데 기인한 바 크다고 한다(이윤호, 2007: 202).

간접피해모형은 주변의 피해경험이 전달되는 것으로서, 이 모형은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폭력범죄에 대한 취약성의 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과 달리 범죄에 대한 간접 노출로 인해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폭넓게 확산되어 공포와 범죄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형이다(Skogan & Maxfield, 1981; 이윤호, 2007: 203-204).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중 외부영향에 의한 범죄두려움 형성은 주변의 범죄피해에 대해 사회적 통제력의 부재를 인식하거나, 타인의 범죄피해를 목격·확인으로 인해 자신의 보호수준에 영향을 주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하거나 해로운 자극이 존재하거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정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된 내적·주관적 경험과 도망가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 및 여러 가지 자율 신경계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Reber, 1985; 조은경, 1997: 30). 이러한 두려움은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에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강간·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인근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주변 상권의 거래 하락, 주민간의 유대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등 소위 '나비효과'로 인해 또 다른 범죄 혹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국민생활의 불안감, 낮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

여 결국 공동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박정선, 1991; 성용은·최경식, 2009: 84).

다시 말해,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수록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영역과 사고는 제한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조은경, 1997: 31).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은 일반인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연령의 차이와 성별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 대다수의 서구의 연구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318),

성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은경(2003)의 연구를 비롯하여, 차훈진(2007)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의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연구결과로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대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야간외출을 삼가거나 특정지역을 피하는 등 자신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지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시간적·공간적으로 거리를 둬으로써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려 하며, 두 번째로는 방범장비를 설치하거나 경비용역을 구매하는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물에 대한 방범설비나 시설을 강화함으로써 표적을 견고화하여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 세 번째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 등 범죄의 예방과 통제와 관련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J. A. Gardiner & G. I. Balch, 1980; Skogan & Maxfield, 1981; 이윤호, 2007: 209).

2. 민간경비의 의의와 구매행동

1) 민간경비의 정의

민간경비라는 것은 공적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내지 보호활동으로서,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인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경비활동으로서, 일반 민간

인 신분으로서 타인에게 제화를 제공받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민간경비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로는 사유재산 및 공간의 경비와 보호, 경호, 접근 통제 및 무인카메라(CCTV) 등에 의한 감시, 범죄조사, 현금이나 귀중품 수송 및 호송, 군중 통제 및 질서유지, 보안관련 제품의 조사, 지적 재산권보호, 위협관리, 보안 컨설팅, 컴퓨터 보안 등 정보보안 등을 들 수 있다(이창무, 2006: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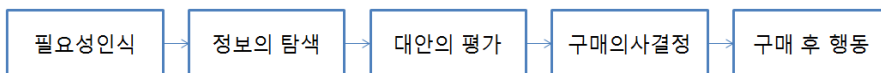
특히, 민간경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업무영역도 확장됨으로써 그 활동영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민간경비의 구매행동

민간경비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때 각각의 제품구매 시 소자의 구매행동은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과 같이 민간경비 역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구매의사결정과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민간경비 선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1〉 구매의사결정과정의 5단계



(자료 : 김상균, 2005: 368의 재인용)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구매의사결정의 1단계인 필요성 인식은 소비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 상황과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과의 괴리가 심할 때 문제를 인식하거나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구매의사결정의 첫 단계이다(김상균, 2005: 368-369).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으로 인해 치안서비스 구매를 고려하게 되는 시기이다.

2단계 정보의 탐색에서는 치안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성을 고려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3단계 대안의 평가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정보탐색을 통해 장·단점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치안서비스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중 민간경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3단계까지의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3단계를 통해 4단계까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3단계에서 진행된 민간경비 선택과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하여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김상균(2005)의 연구에서도 민간경비서비스의 직접적인 결정에 범죄피해의 두려움, 민간경비에 대한 태도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요인, 지역사회 의 자경활동의 활성화정도 등은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충해 주고 있다(김상균, 2005: 391).

이렇듯, 민간경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무질서·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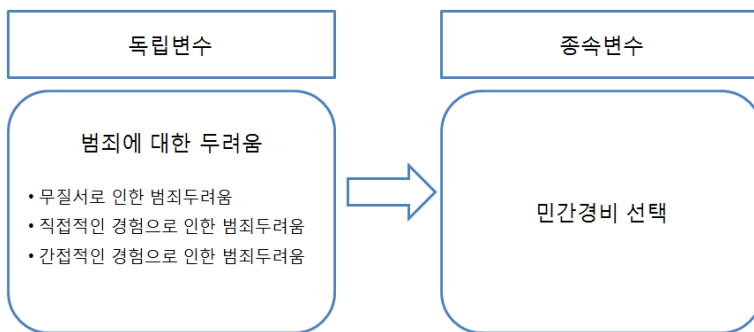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여 종합적인 형태의 범죄두려움과 무질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두려움, 직접적인 피해경험으로 인한 범죄두려움, 간접적인 피해경험으로 인한 범죄두려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서 직접적인 피해경험, 지역특성과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 외부영향에 의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민간경비에 대한 선택을 설정하였다.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치안수요를 야기 시킬 것이고, 이러한 치안 수요를 경찰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통해 치안수요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민간경비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선택 과정 중에서 필요성 인식과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보의 탐색과 대안의 평가를 구매의사결정으로 통합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확인의 경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탐색범위가 제한적이며,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은 특성으로 설문내용에서 통합하였으며, 대안의 평가 역시 객관적인 자료 보다는 광고와 같이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필요성 인식과 대안의 평가를 통합하여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2〉 연구분석의 틀



이 연구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이렇게 확보된 설문내용을 연구분석의 틀과 같이 구성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탕으로, 각 내용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가설의 설정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를 구매하는데 양(+)^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2 무질서에 의한 범죄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를 구매하는데 양(+)^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3 직·간접적인 범죄피해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구매하는데 양(+)^적 영향을 미친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45명(45%)이고 여자가 55명(55%)로 여자가 조금 더 많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9명(9%), 20대가 12명(20%), 30대가 6명(6%), 40대가 24명(24%), 50대가 24명(24%), 60대 이상이 25명(25%)로 60대의 수가 가장 많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7명(17%), 중학교 졸업이 11명(11%), 고등학교 졸업이 39명(39%), 전문대 졸업이 13명(13%),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0명(20%)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은 주부가 41명(4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자영업자 18명(18%), 학생이 14명(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간은 5~10년 미만이 40명으로 (40%), 15년 이상이 39명(39%), 10~15년 미만이 9명(9%)의 순이었다. 거주인

월은 4인 거주가 46명(46%)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3인 거주와 5인 이상 거주가 각각 18명(18%)의 형태를 보였다.

〈표 3〉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5	45
	여자	55	55
	전체	100	100.0
연령	10대	9	9
	20대	12	12
	30대	6	6
	40대	24	24
	50대	24	24
	60대 이상	25	25
	합계	100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17	17
	중학교 졸업	11	11
	고등학교 졸업	39	39
	전문대 졸업	13	13
	4년제 대학교 졸업	20	20
	합계	100	100.0
직업	주부	41	41
	회사원	11	11
	전문직	7	7
	공무원	4	4
	자영업	18	18
	학생	14	14
	기타	5	5
	합계	100	100.0
거주기간	0~1년 미만	6	6
	1~5년 미만	6	6
	5~10년 미만	40	40
	10~15년 미만	9	9
	15년 이상	39	39
	합계	100	100.0
거주인원	1인	4	4
	2인	14	14
	3인	18	18
	4인	46	46
	5인 이상	18	18
	합계	100	100.0

2.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이 연구에서는 무질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범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민간경비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변수 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무질서 항목은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우리 동네는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 동네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의 4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와 공통성이 0.4이상 되는 항목을 선정하였고 Cronbach의 알파값은 0.707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주거침입 절도 혹은 강도피해의 경험이 있다”, “우편물이나 배달물의 도난 피해경험이 있다”, “범죄피해를 입고 보안장치(방범창, 자물쇠)를 보완한 적이 있다”의 3항목을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와 공통성이 0.4이상 되는 항목을 선정하였고 Cronbach의 알파값은 0.768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간접적 경험은 “주위에 주거침입 절도 혹은 강도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주위에 집주변에서 강도, 절도, 협박,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주위에 재산의 손괴 또는 훼손을 당한 사람이 있다”, “주위에 우편물이나 배달물을 도난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의 4항목을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와 공통성이 0.4이상 되는 항목을 선정하였고 Cronbach의 알파값은 0.697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서 민간경비 선택은 “민간경비업체에 가입하고 있다”, “CCTV를 사용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 로고를 부착하고 있다”의 3항목을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와 공통성이 0.4이상 되는 항목을 선정하였고 Cronbach의 알파값은 0.923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항목	고유값	분산%값	요인 적재값	Cronbach ¹ α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¹ α
무질서2	2.133	53.333	.454	.707	.669
무질서3			.622		.551
무질서4			.507		.666
무질서5			.637		.666

직접적 경험1	1,674	55,811	.686	.768	.679
직접적 경험4			.427		.775
직접적 경험5			.792		.414
간접적 경험1	1,821	45,519	.693	.697	.534
간접적 경험2			.438		.672
간접적 경험3			.527		.636
간접적 경험4			.452		.670
민간경비선택1	1,674	55,811	.856	.923	.854
민간경비선택2			.878		.851
민간경비선택4			.830		.883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민간경비 선택차이의 비교

1) 민간경비 선택의 차이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을 비롯한 무질서, 직접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접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민간경비 선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범죄두려움의 경우 .002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변수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과 민간경비선택의 차이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범죄두려움	남	2,2000	.44467	-3,116	.002**
	여	2,5545	.64852		
무질서	남	2,2444	.52296	.749	.456
	여	2,1727	.43504		
직접적 범죄피해	남	1,3481	.44922	.231	.818
	여	1,3273	.45129		
간접적 범죄피해	남	1,2500	.28703	.857	.394
	여	1,1955	.33915		
민간경비 선택	남	2,2933	.95594	-.243	.808
	여	2,3418	1,01811		

* $p < .05$, ** $p < .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선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민간경비를 선택하는 차이가 .049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인원 수에 따라 민간경비를 선택하는 차이가 .006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학력·직업·거주기간에 의한 차이는 무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선택의 차이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대	1,7778	.46308	2.327	.049*
	20대	2,3667	.75719		
	30대	2,0000	.29212		
	40대	2,8333	1,21679		
	50대	2,2667	1,02773		
	60대 이상	2,1280	.98596		
학력	초등학교 졸업	2,3059	.77174	1,028	.397
	중학교 졸업	1,8182	.71808		
	고등학교 졸업	2,4769	1,09508		
	전문대 졸업	2,2000	1,05515		
	4년제 대학교 졸업	2,3800	.99027		
직업	주부	2,1171	.82822	.2155	.054
	회사원	2,7455	1,00833		
	전문직	2,8857	1,03187		
	공무원	1,8000	.40000		
	자영업	2,7111	1,36377		
	학생	1,9429	.56257		
	기타	2,3200	1,03537		
거주기간	0~1년 미만	2,1333	.10328	1,346	.252
	1~5년 미만	1,6000	.61968		
	5~10년 미만	2,5500	.92791		
	10~15년 미만	2,0444	1,02361		
	15년 이상	2,2737	1,11348		
가족인원	1인	2,5000	.94516	3,857	.006**
	2인	2,1429	.67221		
	3인	1,6889	.69696		
	4인	2,6609	1,02404		
	5인 이상	2,1778	1,05136		

* $p < .05$, ** $p < .01$

2) 범죄두려움의 차이

일반적 특성이 범죄피해의 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차이가 .013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학력·직업·거주기간·가족인원 수에 따른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나타났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대한 범죄두려움 차이분석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대	2.2500	.71548	2.984	.013*
	20대	2.6667	.97987		
	30대	2.4000	.41164		
	40대	2.5943	.50770		
	50대	2.3265	.53083		
	60대 이상	2.2500	.40148		
학력	초등학교 졸업	2.2333	.43516	2.090	.084
	중학교 졸업	2.2200	.48045		
	고등학교 졸업	2.4882	.63022		
	전문대 졸업	2.4375	.51208		
	4년제 대학교 졸업	2.5530	.77499		
직업	주부	2.4321	.54916	.787	.581
	회사원	2.6053	.52252		
	전문직	2.5417	.92216		
	공무원	2.6500	.22361		
	자영업	2.3462	.47854		
	학생	2.3235	.84282		
	기타	2.2857	.17252		
거주기간	0~1년 미만	2.7500	.93541	2.385	.053
	1~5년 미만	2.4762	.72846		
	5~10년 미만	2.5096	.63251		
	10~15년 미만	2.2188	.54330		
	15년 이상	2.3164	.45696		
가족인원	1인	2.8750	.90633	1.958	.103
	2인	2.3750	.49670		
	3인	2.2973	.49944		
	4인	2.4740	.60533		
	5인 이상	2.3264	.66767		

* $p < .05$, ** $p < .01$

일반적 특성이 무질서의 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차이가 .000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 무질서로 인한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력·직업·가족인원 수에 따른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나타났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질서 변수의 차이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대	2.5370	.26058	9.815	.000**
	20대	2.7500	.45227		
	30대	1.9167	.20412		
	40대	2.3056	.43121		
	50대	1.9236	.49535		
	60대 이상	2.0667	.47547		
학력	초등학교 졸업	2.2647	.47529	1.284	.282
	중학교 졸업	2.2727	.22697		
	고등학교 졸업	2.1239	.48924		
	전문대 졸업	2.0641	.48371		
	4년제 대학교 졸업	2.3667	.52315		
직업	주부	2.1220	.47730	3.337	.005**
	회사원	2.3030	.43981		
	전문직	1.9524	.75593		
	공무원	2.0417	.43833		
	자영업	2.3056	.25082		
	학생	2.5714	.41197		
	기타	1.7667	.14907		
거주 기간	0~1년 미만	2.1667	.77460	.119	.988
	1~5년 미만	2.2778	.22771		
	5~10년 미만	2.2042	.45681		
	10~15년 미만	2.2778	.47871		
	15년 이상	2.1886	.49346		
가족 인원	1인	2.5000	.63828	1.476	.216
	2인	2.0357	.41950		
	3인	2.3704	.41443		
	4인	2.1667	.50430		
	5인 이상	2.2037	.43369		

* $p < .05$, ** $p < .01$

일반적 특성이 직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차이가 .019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차이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가족인원 수에 따라 .045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학력·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나타났다.

〈표 9〉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접적 범죄피해의 차이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대	1,0000	.00000	2,854	.019*
	20대	1,6389	.70293		
	30대	1,1111	.27217		
	40대	1,4028	.41679		
	50대	1,3611	.40428		
	60대 이상	1,2800	.39299		
학력	초등학교 졸업	1,2353	.36827	1,099	.362
	중학교 졸업	1,2121	.40202		
	고등학교 졸업	1,3333	.41181		
	전문대 졸업	1,3333	.49065		
	4년제 대학교 졸업	1,5000	.55672		
직업	주부	1,2927	.46664	3,297	.005**
	회사원	1,4545	.47779		
	전문직	1,7143	.35635		
	공무원	1,1667	.33333		
	자영업	1,4444	.45733		
	학생	1,0000	.00000		
	기타	1,6000	.43461		
거주기간	0~1년 미만	1,5556	.86066	1,285	.277
	1~5년 미만	1,0000	.00000		
	5~10년 미만	1,3000	.39800		
	10~15년 미만	1,4074	.46481		
	15년 이상	1,3860	.43514		
가족인원	1인	1,1667	.19245	2,537	.045*
	2인	1,2381	.42222		
	3인	1,2222	.37920		
	4인	1,4855	.50040		
	5인 이상	1,1852	.32784		

* $p < .05$, ** $p < .01$

일반적 특성이 간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차이가 .000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차이가 .042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가족인원 수에 따라 .003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학력·직업에 따른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나타났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접적 범죄피해의 차이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대	1,1111	.22048	7.054	.000**
	20대	1,4792	.39107		
	30대	1,0833	.12910		
	40대	1,4167	.37349		
	50대	1,0833	.21703		
	60대 이상	1,1100	.17795		
학력	초등학교 졸업	1,1324	.17936	2.581	.042*
	중학교 졸업	1,0909	.30151		
	고등학교 졸업	1,2051	.32883		
	전문대 졸업	1,2115	.26705		
	4년제 대학교 졸업	1,4000	.36635		
직업	주부	1,1402	.28531	1.300	.265
	회사원	1,2500	.27386		
	전문직	1,4286	.40089		
	공무원	1,2500	.00000		
	자영업	1,3056	.39812		
	학생	1,1786	.30110		
	기타	1,3000	.27386		
거주 기간	0~1년 미만	1,4167	.46547	1.928	.097
	1~5년 미만	1,0833	.12910		
	5~10년 미만	1,2938	.31464		
	10~15년 미만	1,0556	.11024		
	15년 이상	1,1776	.32314		
가족 인원	1인	1,1250	.14434	4.369	.003**
	2인	1,0536	.10645		
	3인	1,1806	.32995		
	4인	1,3478	.36696		
	5인 이상	1,0833	.12127		

* $p < .05$, ** $p < .01$

3.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하위 변수로 무질서·직접적 범죄피해·간접적 범죄피해로 설정하고, 민간경비 선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범죄두려움	무질서	직접적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민간경비 선택
범죄두려움					
무질서	.278**				
직접적 범죄피해	.370**	.160			
간접적 범죄피해	.551**	.285**	.648**		
민간경비선택	.203*	-.123	.505**	.478**	

* $p < .05$, ** $p < .0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무질서와 직접적 범죄피해, 민간경비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범죄피해와 간접적 범죄피해의 상관계수가 0.648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 다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간접적 범죄피해의 상관계수가 0.551로 나타나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직·간접적 범죄피해와 민간경비선택의 상관계수가 0.505, 0.478로 또한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나머지 무질서, 직접적 범죄피해, 민간경비선택은 0.278, 0.370, 0.203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무질서와 간접적 범죄피해 또한 0.285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4.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 선택에 양(+)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 1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 .043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하였으며, t값이 2.054로 나타나 민간경비 선택에 양(+)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가설 1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4.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선택에 미치는 영향

민간경비선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08	.407		3.702	.000
범죄두려움	.339	.165	.203	2.054	.043*
$R^2 = .041$ $F = 4.219$					

* $p < .05$, ** $p < .01$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에서는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 선택에 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 2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이 .224로 나타나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13〉 무질서에 의한 범죄두려움이 민간경비선택에 미치는 영향

민간경비선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881	.469		6.145	.000
무질서에 의한 범죄두려움	-.254	.208	-.123	-1.224	.224
$R^2 = .015$ $F = 1.497$					

* $p < .05$, ** $p < .01$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에서는 직·간접적인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 선택에 양(+)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 3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직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이 민간경비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003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t값은 3.007로서 가설

을 채택시키고 있으며, 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022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값은 2.321로 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29.4%의 보통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채택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직·간접적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민간경비선택에 미치는 영향

민간경비선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42	.339		1.009	.316
직접적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두려움	.741	.246	.337	3.007	.003**
간접적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두려움	.810	.349	.260	2.321	.022*
R ² = .294 F = 20.218					

* $p < .05$, ** $p < .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그간 진행되었던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범죄피해 경험과 주변에 의한 범죄피해 경험, 주변환경의 무질서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하여, 범죄를 피하기 위한 사전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은 일반 경찰을 통해 실시되기도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범죄예방을 하는 경찰보다는 민간경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경비 선택활동은 필요성의 인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실행한다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재화 구매과정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로 나타났다.

각 원인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민간경비 선택에 대한 가설에서는 각 원인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무질서의 경우는 유의한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그 내용이 기각되었으나, 직접적인 피해경험으로 인한 범죄두려움의 증가는 결국 민간경비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간접적인 피해경험으로 인한 범죄두려움의 증가 역시 민간경비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하였다. 김지선의 연구(2004)에서는 성적인 괴롭힘 피해경험은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간접적인 피해경험과 무질서에 의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도 성용인과 최경식의 연구(2009)에서와 같이 간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이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경비 선택에 관한 연구의 경우, 국내 민간경비 연구의 특성 상 실제 민간경비 선택에 대한 실증적 연구보다는 민간경비 활용방안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인 특성으로 인해, 이 연구와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직·간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들은 민간경비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표집의 한계를 비롯한 기타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선행연구들과 같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단순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 이로 인해 다양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를 고려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낮은 설명력은 이 연구가 주장하는 민간경비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효과적인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문

제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집단 간 평균비교를 통해 각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향후 후속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범죄예방활동 중 민간경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곽대경·이승철 (2010).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9, 13-46.
- 김상균 (2005). 민간경비서비스 구매행동의 영향요인. 한국민간경비학회보. 6, 363-394.
- 김인재·조성진 (2011).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35-57.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성용은·최경식 (2009). 주거지 치안환경과 범죄피해위험 인식 및 범죄두려움의 특성과 관계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2), 81-121.
- 성용은·유영재 (2007).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261-283.
- 이도선 (201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2), 143-169.
- 이윤호 (2007).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 이재영 (2011). 범죄피해경험과 지역특성의 상호작용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7(3), 231-250.
- 이창무 (2006). 우리나라 민간경비 급성장의 동인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151-167.
-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형사정책연구, 22(3), 291-326.
-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29-51.
- _____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21.
- 차훈진 (2007). 여성의 범죄 두려움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3(1), 169-197.
- _____ (2008).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경찰연구, 7(3), 177-210.
- 최선우 (2012).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 황의갑 (2009).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형사정책, 21(2), 295-323.

【Abstract】

**Study on the effect of fear of crime on the
selection of private security**

**Kim, Sang-Woon
Shin, Jae-Hun**

Humans are influenced by economic factors, physical environment factor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d by the media.

In particular, the occurrence of the crime for fear of crime due to the human activities of the area has reduced.

Fear of crime influenced by direct victim of a crime, disorder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ndirect victims of crim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ir fears about crime in the private security through crime prevention and.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heir fears about crime in the actual selection of the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activ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crime prevention, through this study will be described.

In this study, we randomly select the survey was in August 2011, as detached house in Seoul and Daegu.

As a result, the fear of crime fears about crime were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by factors of private security selection.

**Key words : Private security, Fear of crime, Disorder, Victimization,
Select of private security**